

‘작은 거인’ 김선빈 부활…KIA 타선도 다시 살아난다



후반기 11경기 타율 0.457 맹타…1경기 제외 꾸준한 생산
하주석 효과도 특독…이범호 “2할7~8푼이면 타선 달라져”

전반기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렸던 KIA타이거즈 김선빈이 후반기 들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통산 3할 타자’의 정교한 타격감을 되찾은 김선빈의 부활은 KIA가 다시 상위권 경쟁에 속도를 내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사실 김선빈은 믿고 보는 3할 타자였다.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앞세워 항상 팀 타선을 이끌어들었다.

데뷔 첫해인 2008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즌에서 3할에 가까운 타율을 유지했고, 2017년에는 타율 0.370으로 타격왕에 오르며 리그 최고의 교타자로 인정받았다. 통산 타율도 0.304에 달한다. KIA가 오랜 시간 김선빈을 타선의 연결고리로 신뢰한 이유다.

하지만 올해 전반기에는 크게 부진을 겪었다. 전반기 83경기에서 276타수 67안타

1홈런 25타점 타율 0.243에 그쳤다. 올 시즌을 앞두고 체중까지 감량하며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기대와 달리 타격 부진이 길어졌다. 통산 3할 타자답지 않게 정교한 타격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수비에 서도 흔들리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런 김선빈이 후반기 들어 KIA 타선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로 변모했다. 후반기 11경기에서 35타수 16안타 5타점 타율 0.457을 기록하며 팀 내 타율 1위에 올라 있다. 11경기 가운데 단 1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안타를 생산했고, 멀티히트도 5차례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삼성라이온즈전에서는 결승타를 터뜨렸고, 31일 NC다이노스전에서는 시즌 두 번째 3안타 경기를 펼치며 타격감을 과시했다.

출루 능력도 크게 살아났다. 후반기 출루

율은 0.525. OPS (출루율+장타율)는 1.011에 달한다. 볼넷과 몸에 맞는 공까지 꾸준히 얻어내며 공격의 물꼬를 트고 있다.

전반기 출루율 0.346, OPS 0.650에 머물렀던 모습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수치다. 중심타선 앞뒤에서 다시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면서 KIA 타선의 응집력도 한층 살아나고 있다.

후반기 반등에는 체력 안배도 큰 역할을 했다. KIA는 지난달 한화이글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수 하주석을 영입했고, 이는 김선빈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루수와 유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하주석이 합류하면서 김선빈은 지명타자로 나서거나 벤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30대 후반 베테랑에게 가장 필요한 체력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휴식은 곧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출전 시간이 다소 줄었지만 타격감은 오히려 더 올라왔고 공수 집중력도 한층 높아졌다. 하주석과 번갈아 내야를 책임지면서 체력 부담을 덜었고, 필요할 때는 지명타자로 출전하며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마

련됐다. 경쟁과 휴식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김선빈도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범호 감독도 김선빈의 반등을 반기고 있다.

이 감독은 “김선빈이 경기마다 하나씩 안타를 치면서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 같다”며 “팀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선수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안 맞다 보니 어떻게든 안타를 치려는 마음이 커지면서 페이스가 떨어졌던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앞으로 잘해줘야 하는 선수가 김선빈이다. 타율 2할7~8푼 정도만 만들어줘도 타선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도영과 나성범, 카스트로가 중심타선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김선빈까지 제 모습을 되찾으면서 KIA 타선은 한층 짜임새를 갖추게 됐다. 2번 타순은 물론 하위타선에서도 상대 마운드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생긴 만큼 후반기 KIA의 공격력도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민술



서교림



박민지



안송이

신에 돌풍부터 대기록까지…KLPGA 상반기 빛났다

2026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가 상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반환점을 돌았다. 올 시즌 상반기에는 2006년생 신예들의 돌풍과 베테랑들의 대기록이 어우러지며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하반기에는 역대 최다승과 신인 최다승 등 굵직한 기록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반기 최고의 주인공은 단연 김민술이다. 지난해 추전 선수 신분으로 우승하며 정규투어에 입성한 김민술은 올 시즌 ‘IM 금융오픈 2026’, ‘메리세테스-벤츠 제40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맥클·모나 옹평 오픈 with SBS Golf’를 제패하며 가장 먼저 시즌 3승 고지에 올랐다.

김민술은 출전한 14개 대회에서 톱10 5회, 컷 탈락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상포인트(313점), 상금(9억8452만9428원),

김민술 3승·서교림 첫 우승…2006년생 루키 경쟁 뜨거워

박민지 20승 타이·안송이 400경기…하반기 신기록 도전

신인상 포인트, 평균타수, K랭킹까지 주요 부문 선두를 휩쓸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같은 2006년생인 서교림도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신인왕을 차지하고도 우승이 없었던 서교림은 ‘2026 셀트리온 윈즈 마스터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인카금융더해브 마스터즈’까지 제패하며 시즌 2승을 기록했다. 대상포인트와 상금 모두 김민술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상반기 17개 대회에서는 모두 13명의 우승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짜라워 분짬, 임진영, 서교림이 생애 첫 우승의 기

쁨을 누렸다. 특히 짜라워 분짬은 KLPGA 투어 최초의 태국인 우승자이자 IQT(인터내셔널 퀴리파인 토너먼트) 출신 첫 챔피언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베테랑들의 활약도 빛났다. 김효주는 시즌 2승을 기록했고, 고지원과 김민선7, 이예원, 유현조, 방진실, 박민지, 고지우, 이다연도 각각 1승씩을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기록 부문에서는 박민지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그는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에서 최홍일 5타 차를 뒤집는 역전 우승으로 KLPGA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하며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안송

이는 한국여자오픈에서 투어 최초 통산 4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최다 출전 기록을 이어갔다.

오는 6일 개막하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열리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록이 기다리고 있다. 박민지는 1승만 추가하면 KLPGA 투어 역대 최다승 신기록을 작성하며, 개인 통산 상금 70억 원 돌파도 노릴 수 있다.

김민술 역시 시즌 4승을 달성하면 역대 루키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남은 메이저 대회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예고된다. 박민지가 KLPGA 챔피언십을 제패하거나, 이다연이 KB금융 골드레이프 챔피언십 또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KLPGA 투어 최초로 서로 다른 4개의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FC 주세종, K리그 통산 300경기 금자탑

국가대표·해외 무대 거친 베테랑…특별 MD 3종 출시

프로축구 광주FC의 베테랑 미드필더 주세종이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금자탑을 쌓았다.

주세종은 지난 2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하나은행 K리그1 원정경기에 출전해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했다. 2012년 부산아이파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주세종은 FC서울과 아산무궁화,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 대전하나시티즌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5시즌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주세종은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넓은 시야, 정확한 패스를 앞세워 팀 중원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올 시즌에도 주장급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기 안팎에서 선수단을 이끌며 광주FC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 중이다.

광주FC는 주세종의 300경기 출전을 기념해 특별 MD도 선보인다. 주세종의 별명인 ‘킹세종’을 모티브로 숫자 ‘300’과 왕관 그래픽을 활용했으며, 등번호 8을

숫자 3과 세로로 배치해 하나의 ‘300’으로 보이도록 디자인에 상징성을 더했다. 기념 상품은 아크릴 컵과 전사 마플러, 포토마킹(유니폼 부착용)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아크릴 컵에는 선수 이미지를 활용한 일체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됐고, 전사 마플러에는 ‘300 APPEARANCES’ 문구와 이름, 등번호를 담아 기록 달성의 의미를 강조했다. 포토마킹은 유니폼에 부착해 팬들이 함께 300경기 기록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세종은 “300경기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동료 선수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팀을 위해 헌신하며 더 많은 승리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세종의 K리그 통산 300경기 기념 MD는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광주FC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프리오더 방식으로 판매되며,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후, 7·8호 홈런 포함 3안타·1도루 ‘펼펼’

텍사스 경기서 3타점·2득점 추가하며 공·수·주 맹활약

이정후(27)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전들이 대거 트레이드된 날 멀티 홈런을 치며 공·수·주에서 펼 펼 날았다.

이정후는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 방문경기에서 솔로 홈런 두 방을 터뜨리는 등 4타수 3안타 1도루 3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10번째 3안타 이상의 불방망이를 휘두른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06으로 끌어올렸다.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선발 출장한 이정후는 3회초 1사 후 타석에 나서 콧필의 133.5km 스피리터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터뜨렸다.

이어 이정후는 5회초 2사 후에는 날카로운 좌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곧바로 2루로 뛰어 시즌 8호 도루에 성공했다.

이정후는 네 번째 타석에서도 화끈한 장타를 쏘아 올렸다.

8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페이턴 그레이의 낮게 깔리는 139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홈런 두 방을 친 것은 지난해 4월 14일 뉴욕 양키스전에 이어 두 번째다.

시즌 8호를 기록한 이정후는 지난해 세운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과 타이를 이뤘다.

샌프란시스코가 기록한 6안타의 절반인 3안타를 혼자 몰아친 이정후는 우익수로도 여러 차례 호수비를 펼치며 5-1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마감일인 이날 사이영상 출신 투수 로비 레이와 타격 1위 루이스 아라예스 등을 내보내며 시즌을 포기했으나 이정후의 ‘원맨쇼’에 힘입어 3연패의 시름을 끊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 ‘봄’ 성료

양궁·파크골프·펜싱 운영…유·청소년·시니어 53명 수료

광주시체육회가 운영한 ‘2026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봄’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한 ‘2026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봄’ 프로그램을 마치고 유·청소년과 시니어 등 총 5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궁과 파크골프, 펜싱 등 3개 종목으로 운영됐으며, 종목별 특성에 맞춰 참가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체육활동을 제공했다. 양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파크골프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펜싱은 7세

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강습은 광주시체육회가 보유·관리하는 체육시설을 활용해 남구 국제양궁장과 북구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등 3개소에서 열렸으며, 종목별 10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지도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종목별 기초기술을 익히고 스포츠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양궁과 펜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최근 생활체육 종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는 시니어 참가자들의 높은



광주시체육회가 운영하는 ‘2026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봄’ 파크골프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광주시체육회는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교실은 지역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봄 시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절별 스포츠교실을 확대 운영해 시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